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팥고물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팥고물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팥고물

한눈에 보는 기록

뜻
팥을 삶아 으깨어 만든 가루. 떡에 묻히거나 쪄켜로 뿌리는 떡고물로 쓴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팥고물	-	-	-
팥고물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팥을 삶아 으깨어 만든 가루. 떡에 묻히거나 쪄켜로 뿌리는 떡고물로 쓴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팔고물'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팔을 삶아 으깨어 만든 가루. 떡에 묻히거나 켜켜로 뿌리는 떡고물로 쓴다.



팔고물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팔고물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팏고물 사전 표기 요약	—	—	—	—	●→	●→
팔고물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팏고물
19세기20세기
- 팔고물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팏고물, 팔고물

ㄷ 팔고물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ㄷ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팔고물’의 옛말인 ‘팻고물’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ㄷ 말의 구성과 어원

‘팻고물’은 현대어 ‘팔’으로 이어지는 ‘팻’과 인절미나 경단 따위의 겉에 묻히거나 시루떡의 켜와 켜 사이에 뿌리는 가루로 된 재료를 뜻하는 ‘고물’이 결합한 것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팻’은 15세기부터 ‘팍/팍’으로 나타났는데 단독으로 쓰일 때나 자음 앞에서는 ‘팍’으로 표기되었다.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팍’으로 변화하였는데, ‘팻고물’의 ‘팻’이 그것이다. 18세기에는 ‘팍’의 형태도 나타난다.

현대 맞춤법에서 ‘팻’으로 표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세기에 ‘팔고물’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팔고물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팻고물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팻고물

출처 1880 한불사전 355

용례 01

66 문헌 용례

팻고물 [豆屑].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327

용례 02

66 문헌 용례

팻고물 [豆屑].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464

용례 03

66 문헌 용례

팻고물 [豆屑].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팻고물, 팔고물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팻고물, 팔고물

출처 1908 귀의성 하:54

용례 04

66 문헌 용례

갑쇠가 니리 굴러 써러져서 인절미에 팻고물 못친 드시 전신에 황토칠을 벌거케 하고 툇툇 썰고 이러누 논디.

현대어 풀이

갑쇠가 내리 굴러떨어져서 인절미에 팔고물 묻힌 듯이 전신에 황토 칠을 벌겅게 하고 툇툇 털고 일어나는데.

출처 1908 은세계 42

용례 05

66 문헌 용례

징반 갓흔 논쌔-이에 지 쌔 훈 쌔 물을 싣고 어레 갓흔 써레말로 목침 갓흔 흙덩이를 팅고물갓
치 푸러노왔네.

㉮ 현대어 풀이

쟁반 같은 논배미에 손가락 뺨 한 뺨 물을 싣고 열레 같은 써레말로 목침 같은 흙덩이를 팅고물같이 풀어놓았네.

출처 1929 동아일보 8월15일 5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만일 그 탑을 맨든 원료가 정말 돌이라면 신라 사람은 돌을 돌가티 쓰지 안코 마치 콩고물이나
팟고물처럼 맘대로 쫓대로 손가락 쓰테 휘젓고 주물르고 하는 신통력(神通力)을 가졌든 것이
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조선일보 3월15일 5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겨울이면 감기나 들지 안을까 하고 수수경단에 팅고물 무치듯 솜에 동글동글 싸서 길르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9 동아일보 5월17일 4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사과는 껍질을 벗겨서 알판알판하게 썰어 두 쪽을 맛게 하여서 가온데 팅고물을 너코 기름에
싸서 남비에 기름을 펄펄 끓이다가.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팔고물 관련 낱말

팔, 고물



- basic.wordrow.kr 팔명사삶아서 죽을 쑤거나 떡이나 빵에 넣어서 먹는, 맛이 구수한 짙은 자주색의 곡식.관련
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기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팔고물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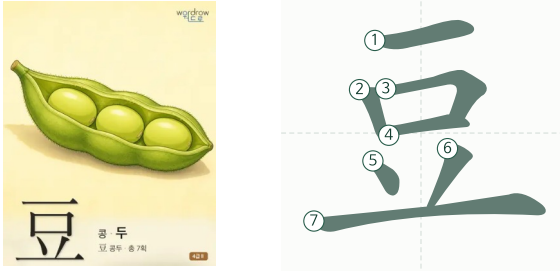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팔고물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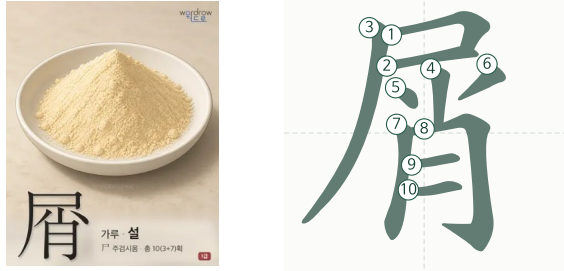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豆 뜻·음 콩 두
총 7획 · 부수 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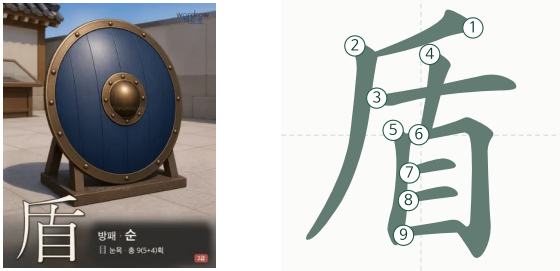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豆/

屑 뜻·음 가루 설
총 10획 · 부수 尸



hanja.wordrow.kr/한자/屑/

盾 뜻·음 방패 순
총 9획 · 부수 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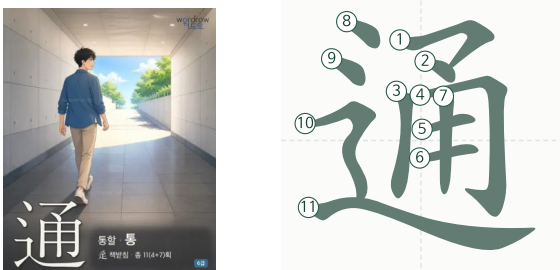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盾/

神 뜻·음 귀신 신
총 10획 · 부수 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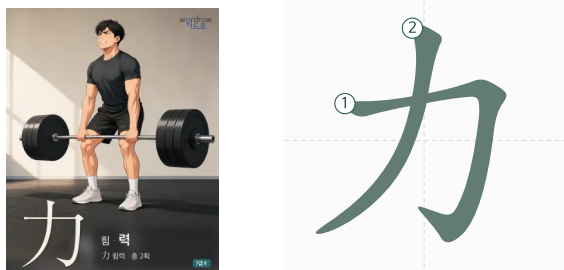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神/

通 뜻·음 통할 통
총 11획 · 부수 辶



hanja.wordrow.kr/한자/通/

力 뜻·음 힘 력
총 2획 · 부수 力



hanja.wordrow.kr/한자/力/